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호주오픈 우승…‘V10’ 대기록

女단식 역대 최초…32강부터 ‘전 게임 스트레이트 승’

압도적인 행보…다음달 월드투어 파이널스 제패 도전

전남 나주 출신인 ‘세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호주오픈 정상에 오르며 올 시즌 ‘10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7위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를 2-0(21-16 21-14)으로 완파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안세영은 2022년 호주오픈 우승 이후 3년 만에 다시 시드니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특히 올해만 15개 국제대회에 출전해 10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여자단식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시즌 10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기존 BWF 단일 시즌 여자단식 최다 우승 기록(9승)은 2023년 안세영 본인이 세웠던 기록으로, 올해 그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것이다.

올 시즌 안세영의 우승 행보는 압도적이었다.

슈퍼 1000 시리즈 3개(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슈퍼 750 시리즈 6개(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 슈퍼 300 대회 오렐레앙 마스터스까지 총 10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며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굳혔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출전하는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2019년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1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초반부터 경기 내내 안세영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았다. 1·2게임 모두 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잡은 그는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40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특히 2게임에서는 시작부터 9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상대의 투지를 완전히 꺾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32강부터 이날까지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으며 완승 행진을 이어갔다.

32강부터 결승까지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모두 2-0으로 완승했다.

이날 결승전에서 안세영은 초반부터 완벽한 경기운영으로 흐름을 장악했다.

1게임에서 10-8 리드 상황에서 잠시 4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내줬지만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다. 15-16에서 곧바로 6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1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은 더 압도적이었다. 상대의 패기를 초반부터 차단하듯 9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쥐었다.

중반 9-10으로 잠시 밀리는 듯했으나 다시 5연속 득점으로 간격을 벌였고, 이후 줄곧 리드를 유지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 시간은 단 40분. 안세영의 철벽 같은 집중력과 절정의 컨디션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32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모두 2-0으로 완승했다.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세계 1위의 클래스’를 증명한 셈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7위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인도네시아)를 2-0(21-16 21-14)으로 완파하며 우승, 올 시즌 ‘10번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광주FC, 홈 최종전서 울산 꺾고 7위 도약

프리드온슨 ‘선제골’·최경록 ‘빼기골’로 2-0 완승

14승9무14패 승점 51점…30일 수원FC와 최종전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홈 최종전에서 울산

을 꺾고 7위 도약에 성공했다. 광주는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올 시즌 홈 최종 경기에서 승리한 광주는 14승 9무 14패 승점 51점을 기록, 안양을 제치고 리그 7위에 올랐다.

앞으로 파이널 라운드 종료까지 수원FC와 30일 1경기만을 앞둔 광주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가 다음 달 열리는 코리아컵에서 구단 역대 최초 우승을 노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이 이끈 광주는 이날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프리드온슨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안혁주, 유재호, 주세종, 신정무를 배치했다. 후방은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이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경기 전반전은 광주의 결정력이 빛났다. 울산은 전반 불점유율 58%를 가져갔고, 슈팅 4번과 유효슈팅 1번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는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골을 터트렸다.

전반 3분 안혁주가 상대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골문 앞에 자리 잡았던

프리드온슨은 이를 헤더로 연결시키며 상대 골망을 갈랐다.

광주의 공세는 계속됐다. 전반 15분 헤이스가 상대 진영 인근에서 수비를 돌파한 뒤 골로 이어지는 강력한 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상대는 분위기를 되찾기 위해 교체 카드를 활용하며 공세를 더했다. 전반 27분 상대 이청웅이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 위로 빠졌다. 전반 추가시간에는 상대 정성현의 중거리가 높게 땀다.

결국 전반전은 1-0으로 끝이 났다.

후반전 시작 후 광주는 안혁주 대신 하승운을 투입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14분에는 주세종 대신 이강현이 투입됐다.

후반 17분 역습 상황에서 헤이스의 패스를 받은 신정무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상대 수비에 막혔다. 7분 뒤에는 신정무와 프리드온슨 대신 최경록과 박인혁에 그라운드에 나섰다.

이 교체 카드는 후반 29분 적중했다. 박인혁의 허를 찌르는 중거리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이후 측면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으로 달려온 최경록이 밀어 넣으면서 빼기골을 폭발시켰다. 상대는 추가 교체 카드를 활용해 반격에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광주 FC 프리드온슨이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나섰으나 광주의 기세를 골을 넣지는 못했다. 결국 경기는 2-0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꿈나무 학생들의 건강증진·교우활동 개선 이룬다”

시체육회 ‘청소년 클럽대항 대회’ 성료…티볼·플로어볼 대회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25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2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동구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줄넘기 대회를 시작으로 첨단체육공원에서 열린 티볼대회,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플로어볼대회가 학생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청소년 생활체육 클럽대항전은 매년 열리는 대회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인 줄넘기,

티볼, 플로어볼 종목으로 선정해 개최했다. 올해는 광주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1100여 명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발휘했고, 경기종목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과 경기 참여를 통해 건강증진 및 교우활동 개선 등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클럽대항전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FA 1호’ 이준영 3년 총액 12억원

“많은 경기에 뛰면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선수 될 것”

KIA타이거즈가 1호 FA 계약으로 집토키단

속에 성공했다. KIA는 23일 “이준영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12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5년 2차 4라운드로 KIA에 입단한 이준영은 2016년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8시즌동안 통산 400경기에 출장해 277이닝 13승 2세이브 67홀드 평균자책점 4.8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시즌 연속 50경기 이상을 출전하며 볼펜에서 큰 힘이 됐다.

이번 시즌에는 57경기에 등판해 3승 1패, 7홀드, 평균자책점 4.76을 남겼다.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에서는 4경기에 등판한 점도 주지 않는 투수로 우승에 일조했다.

이준영은 “첫 FA 계약인데 좋은 제안을 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 같아 뿌듯하다. 내년에도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서 KIA팬들의 응원을 다시 들을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 저의 장점인 만큼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겠다. 어느덧 데뷔 12년차가 되는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이준영 KIA타이거즈 선수가 1호 FA 계약을 맺었다.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심재학 단장은 “이준영은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제 역할을 꾸준히 해온 선수이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하며 팀 내 어린 투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다음 시즌에도 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IA의 남은 내부 FA에는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등 3명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18개 시·군지회 예산교육 워크숍

보조금운용·전자결재시스템 역량 강화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솔비치 진도에서 ‘2025년 전남장애인체육회 시·군지회 예산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8개 시·군장애인체육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예산교육으로, 보조금통합포털 사용자 교육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강의

와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신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병행해 참여자들이 업무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활용법을 숙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시·군장애인체육회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 일원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실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예산 및 법정 의무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경기가맹단체 실무자들이 실질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장애인체육 행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